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⑤ 산수유꽃차

신장과 소양인에 좋은 꽃차
〈腎臟〉

산수유는 층층나무과 층층나무속 낙엽 활엽 소교목이다. 꽃은 암수 한꽃으로 3~4월 잎보다 먼저 피고 노란색이며, 열매는 장과로 긴 타원형이며, 종자는 타원형으로 8월에 성숙한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 주산지는 전남 구례, 경기도 이천, 여주, 양평, 경북 의성군이며, 구례는 조선시대에 산수유를 처음 심어 주산지가 되었다. 〈삼국유사〉에는 "도림사(道林寺)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같다' 라는 소리가 들려 왕이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나무를 대신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용부위는 꽃과 열매이며, 약용 또는 차로 사용한다.

성분과 약성

산수유 열매에는 코르닌(cornin), 벨베나린사포닌(verbenalin saponin), 탄닌(tannin), 우르솔산(ursolic acid), 사과산(malic acid), 비타민 A 등이 함유되어 있다. 산수유는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으며 맛이 시고 떫다.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보익(補益)하는 효능이 있어서, 신장과 생식기능의 감퇴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야뇨 · 두훈(頭暈), 이명과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은근히 통증을 느낄 때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또 정기(精氣)를 수렴하여 유정, 빈뇨, 이뇨, 현기증, 이명증 등을 치료한다. 허리와 무릎통증에 효과가 있다. 진액이 빠져나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다스린다.

마음 · 기(氣)작용

〈동무유고〉 '동무약성가' 에서 밝힌 산수유의 약성은 '신장의 정(精)을 잡아주고 골수를 보태주며, 신허(腎虛)로 인한 이명(耳鳴)을 낫게 하고,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멈추게 한다.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기(腎氣)를 곧게 한다(澀精益髓, 腎虛耳鳴, 腰膝痛止, 健腎直腎.)' 이다.

산수유꽃차는 신장의 정을 잡아주고 골수를 보태주며,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기(腎氣)를 곧게 하는 소양인의 꽃차이다.

소양인은 노성애정(怒性哀情)으로, 밖으로 나가서 일 벌리기는 좋아하지만 마무리가 부족하다. 맛이 시고 떫은 산수유꽃차는 소양인의 신장(腎臟)의 기운을 도와서 온화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한다. 소양인은 비장의 기운이 크고 신장의 기운이 작은 비대신소(脾大腎小)의 장국으로, 비장의 수곡열기는 많은데 신당(腎黨)의 수곡한기는 부족한 사상인이다. 따라서 산수유꽃차는 작은 장부인 신장의 수곡한기를 잘 흐르게 한다.

즉, 산수유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기(腎氣)가 곧게 순행하도록 돕는데, 이는 수곡한기의 정해(精海)와 관계된다. 수곡한기는 대장에서 액(液)이 생성되어 생식기 앞의 액해(液海)로 들어가고, 액해의 맑은 기운이 입으로 나아가 정(精)이 되고, 정(精)이 오줌보(방광)로 들어가 정해가 되며, 정해의 맑은 즙을 신장이 빨아들여서 신장의 원기를 보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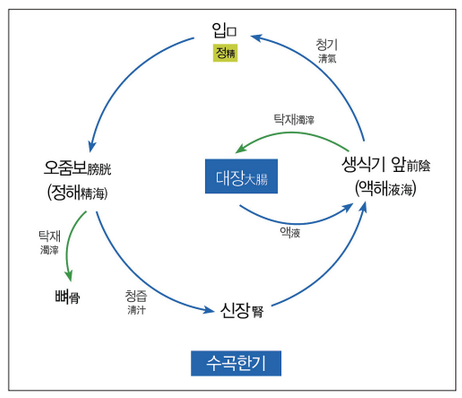


산수유는 오줌보의 정해를 충만하게 하여 허약한 신장의 기를 보익함으로 유정, 빈뇨, 이뇨, 현기증, 이명증 등을 치료하는 것이다.〈위 그림 참조〉

또한 산수유는 간의 기능을 보익하며 허리와 무릎이 아픈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에서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되고, 혈해의 맑은 즙을 간(肝)이 빨아 들여서 간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산수유는 혈해를 충만하게 하고, 뼈에서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 생성을 도와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제다 및 음용

산수유는 꽃과 열매를 차로 제다하여 음용할 수 있다. 꽃은 3~4월에 갓 피어난 꽃 봉우리를 채취한다. 중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산수유꽃차를 완성한다. 또 산수유 열매는 10~11월 과실이 빨갛게 성숙하였을 때 채취한다. 산수유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는다. 씨를 제거한 후 중온에서 수분을 건조한다. 고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산수유꽃차 우림은 산수유꽃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로 우린다. 또 산수유 열매와 숙지황, 산약, 구기자를 블렌딩할 수 있다. 산수유 3g, 숙지황2g, 산약 1.5g, 구기자1.5g에 물 1000ml를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0여 분 더 끓인다.

산수유차 블렌딩은 간과 신장이 기가 부족하여 어지러움증과 이명증, 허리와 무릎이 연약하고 시릴 때, 정액이 유실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병증에 도움이 된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먼저 산수유꽃차에서 탄고구마 향과 시래기 삶은 향이 났으며, 은은한 단맛이 돌면서 고구마 탄 맛이 났다. 두 세잔을 마시고 난 후 목이 마르고, 혀가 따가운 증상이 나타났다.

다른 시음자는 산수유꽃차에서 시골의 바람 같은 향이 나며, 한 잔 마시니 고향의 품같이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정겨운 맛에 절로 엄마 품에 있는 듯 감상에 젖게 한다. 마시고 난후 입안에서는 단맛과 함께 약간 떫은맛이 나면서 갈증이 느껴졌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첫 잔에서는 시래기 삶은 맛이 나고, 시래기 말린 냄새가 났다. 첫 잔을 마시니 코가 시원해졌다. 두 번째 잔에서는 시래기 맛과 구수한 맛이 나면서 속이 편안하고 트림이 났다. 소화가 잘되어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은은한 밝은 노란빛을 띤 우림한 차에서 말린 고구마 향이 났다. 첫 잔에서는 삶은 밤고구마 맛이 났으며, 빨려 들어가는 단맛이 났다. 두 번째 잔에서는 살짝 단맛도 났다. 다른 차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고 밋밋하였다. 속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시고 난 후에 끝 맛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났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연예인불자 신행일기 ③ 만담가 장광팔

뗏목을 버려라

왕십리 단우물 근방에 살고 계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나는 1950년대 말 심인당(心印堂)이라는 절에 다녔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참 특이한 절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울릉도에 본찰이 있는 대한불교 진각종 심인당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였다.

그곳 법당에는 불상도 없고 법단에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이란 글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가부좌를 틀고, 왼손의 검지를 세워 오른손으로 말아 쥐고, "옴마니반메훔"을 30분 남짓 염송을 하면 딱! 딱! 딱! 전수님의 짧은 죽비소리와 함께 몸을 편히 쉴 수 있었다. 염송만 하려 하면 왜 그렇게도 콧잔등이 가려운 지 30분이 참으로 길게만 느껴지던 어렵풋한 기억이 있다.

한 번은 가족들이 집에서 염송을 할 때마다 적립해둔 불전을 심인당 불전함에 넣고 오라는 어머니 심부름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하필 '만나당' 아이스케키 장사를 만난 것이다. 주머니에 있는 불전 중 절반 정도를 꺼내어 아이스케키를 사서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달게 먹고 나머지 절반만 불전함에 넣었다. 심부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혹여 배달사고가 들통날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집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설상가상으로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는 내 좌우명은 그때 어린 마음에 새겨진 작은 깨달음이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를 따라 수륙재의 근본도량으로 알려진 진관사에 다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계(戒)를 받고, '삼소(三笑)' 라는 법명을 받았다. '삼소' 란 고승 혜원(慧遠)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동진(東晋)의 고승 혜원이 수행정진을 하던 동림정사(東林精舍) 밑에는 '호계(虎溪)' 라 불리던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혜원이 찾아온 손을 배웅할 때 이 호계를 건너가면 호랑이가 울었다고 한다. 그래서 혜원은 손님을 보낼 때는 이 개울을 경계로 하여 그곳 너머로는 절대 배웅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도사 육수정(陸修靜)을 배웅하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다



사진제공=장광팔 씨

무심코 호계를 건너고는 호랑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문득 이 사실은 깨달은 세 사람이 파안대소하였다는 고사로 이를 배경으로 그린 동양화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 에서 따온 말이다.

"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그 공덕이 수승하다"는 말씀으로 스스로 위안하며, 그저 초하루와 보름 법회에만 겨우 참석하는 이른바 날라리 신도였지만, 이런 연으로 만담가 장소팔 선친으로부터 사사한 만담을 통해 장사익 선배님 등과 함께 산사음악회의 단골 사회자가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여성조선〉에 장만세(장광팔이 만담으로 본 세상만사) 기사를 연재하며 진행한 큰스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승한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불심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수락산 도안사 선묵 혜자 스님께서 청담 큰스님 시자승으로 계실 때의 일화이다. 큰스님께서 출타를 하셨는데, 노보살 한 분이 쟁반에 떡을 소복이 담아 오셨다. 그런데 때마침 법정 스님 등 몇몇 젊은 스님들께서 큰스님을 뵈러 오셨다가, "이게 웬 떡이냐"며 말릴 겨를도 없이 후다닥 접시를 비워냈다. 다음 날 큰스님이 돌아 오시자마자, 마침 노보살님이 쟁반을 찾으러 오셔서 "큰스님! 떡은 맛있게 드셨어요?" 하며 여쭈니, 큰스님이 의아해 "무슨 떡?" 하고 되물으셨다. "어제 올린 늙은 호박 버무리 안 드셨어요?" 하며 공치사를 하는 노보살 옆에서 시자스님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큰스님께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달게 잘 먹었어"라고 답하시니 노보살이 흐뭇해하며 쟁반을 들고 나섰다. 이에 선묵 시자스님이 여차저차 상황을 말씀드리며 "왜 보지도 못한 떡을 달게 잡수셨다"고 하셨는가 여쭈어보니,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방편이란다" 하셨다고 한다. 큰스님께서는 〈법화경〉의 〈방품편〉을 이 해프닝을 예로 들어 쉽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일화를 듣고, 나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

〈중아함경〉에서 붓다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일단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려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뗏목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닐진대, 다시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비로소 마음에 새겼다. 얼마 전 인연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의 국악분과를 맡게 되었다. 이 뗏목을 타고 언제나 전법의 강을 건너 목적지에 이르러 뗏목을 태울꼬?

전재영(연예인전법단 사무국장)

일일시호일

추락으로 턱뼈·대퇴골
골절되며 꿈도 무너져

몇 차례 수술로 뼈에 철심 박고 입안에도 나사못 8개 심어
회사·네팔 스님 배려에도 1300만원 병원비 남아 귀국도 못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